

## 제31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권순철

소속: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

주제: 한국학·일본학, 그 기원을 생각한다. - 근대학문의 수용과 전개

일시: 2005년 11월 22일 (12 : 00 - 14 : 00)

### \*강연 내용

#### -학술사상의 과제

1. 현재의 한국 학술은, 식민시대에서 유래한다.
2. 근대 일본의 학술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3.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그리고 현대: 연속과 단절
4. 타자로서의 일본인식은 무엇인가.

오늘은 근대학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술 용어, 개념어들은 대부분이 일본어에서 따온 것이 많다. 단어 만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정의, 설명, 체계 등도 일본인들이 서양의 선진문명국의 학문을 배우고,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인 것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많다. 이런 이식된 학문의 여러 체계는 해방 이후에 한국 학술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한국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동양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철학을 접하게 된 일본인들은 서양학술사의 개념과 정의를 그대로 번역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재를 양성하자면 근대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 학문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 서양의 여러 사상뿐만 아니라, 교육체제 등을 그대로 수용했다.

서양의 철학을 보면 신화와 종교라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철학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양의 철학이 형성되게 된 역사 때문에, 철학의 기반에는 종교학이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동양 철학을 형성하게 된다.

동양 철학은 근대의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국민도덕'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로 동양에서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동양의 유일한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일본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시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同文同種, 日朝同祖, 五族協和)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근대 일본의 철학 가운데, 동양철학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학문으로의 목적 및 지향점이 일본의 동양 '신학'이었다.

한국에서 한국철학은 동양철학의 한 분야 내지는 분과로 존재한다. 그 주 내용은 유, 불, 도의 3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유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철학은 1948년 대한민국 성립과 함께 한국의, 한국인의 철학을 모색, 구축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여기에는 일제시대의 '조선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극복의식이 구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초창기부터 한국철학의 내용은 이미 일제의 조선철학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조선철학이 대일본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철학으로 구축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천황제, 대일본제국의 신학에 봉사하였던 동양철학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연자가 일본의 한국 지배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은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것이다. 맨 처음 메이지 원년인 1868년에 교토에서 구상되어 설치된 황학소(皇學所)와 한학소(漢學所)는 본학과(國學), 경제학(제도학), 사장학(문학), 예기학(천문, 음악, 산수 등의 서양의 기술학습을 포함)의 4과목을 가르쳤으며, 메이지 3년에 교토부 중학교가 되었다.

메이지 3년에는 동경에 창평학교와 개성학교, 의학교를 합쳐 대학교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서 황학(國學)을 중심으로 한학과 양학을 통합하는 황도주의(皇道主義)의 학문이념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문화정책 추이에 따라, 황학중심주의의 이념이 변화하여 1871년경에는 명확히 양학 중심의 계몽주의가 주류가 되었다.

그 뒤, 메이지 3년에는 대학 규칙, 중소학 규칙이 공포되었고, 메이지 4년에는 대학이 폐지되고 문부성이 설치되었다. 메이지 5년에 이르러, 문부성의 통제 아래서 근대적인 교육의 틀이 확립되기 시작하여, 개인적 이기주의, 기회균등, 실용적인 학문 등의 특징적인 성격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메이지 7년에는 여러 가지 기구의 설치를 통해,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미 이 시기에 일본은 교육기구를 통해 인재 모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대학설립에 이르기까지, 일본교육은 철저히 서양학문의 기반 아래 이식된 서양과학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물론 민간학자들의 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정부의 문화사업이었다. 학교의 설립, 외국인 교사의 초빙, 유학생의 파견, 번역서의 간행 등이 모두 정부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 학문의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다.